



“건강한 양파 모종, 씨 뿌리는 시가 초기 싹 틔우기가 좌우”

- 늦더위·집중호우에 육묘 실패 늘어… 농촌진흥청, 안정 생산 핵심 수칙 제시
- 남부 중만생 9월 18일 이후 권장… 아주심기 45~60일 거슬러 씨 뿌림 결정
- 파종한 육묘판 20~25도(℃) 그늘에 2~3일 밀봉해야 고르게 싹 터

고온과 집중호우가 반복되면 양파 모종을 기르는 초기 단계부터 생육이 고르지 않거나 모종이 약해질 수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안정적인 양파 모종 생산을 위해 지역별 아주심기 시기에 맞춰 씨를 뿌리고, 파종 직후 싹 틔우기(최아) 관리 수칙을 당부했다.

양파는 모종을 기르는 육묘 관리에 따라 생육과 수확량이 좌우된다. 최근에는 9월 이후에도 늦더위가 이어지고, 국지성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피해가 없도록 지역별로 씨앗을 제때 뿌리고 싹이 잘 트도록 주의할 것을 기울여야 한다.

△육묘용 씨앗 뿌리는 시기= 씨앗 심는 시기는 모종을 본밭에 옮겨 심는 아주심기(정식) 시기를 거꾸로 계산해 정한다. 아주심기는 보통 45~60일 기른 모종을 하루 평균기온이 15도(℃) 정도에 달할 때 심는다. 지난해에는 남부지방 중만생종 양파 기준으로 9월 18일 이후 씨앗을 뿌리고 11월 상순부터 아주심기가 이뤄졌다. 올해 9월 온도도 평년보다 높을 예정으로 육묘용 씨앗은 9월 18일 이후에 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육묘용 씨앗 싹 틔우기= 싹 틔우기(최아 처리)는 육묘판(트레이)에 파종한 종자를 적정 온도와 수분 조건에서 싹이 트기 직전까지 관리하는 방법이다.

씨를 심고 물을 준 육묘판을 받침대(팔레트)에 5단씩 교차해 최대 30단 까지 쌓는다. 검은색 랩이나 비닐로 밀봉한 뒤, 20~25도(℃)의 그늘에서 2~3일간 보관*한다. 처리를 마친 육묘판(트레이)은 곧바로 육묘상(모종 키우는 곳)에 배열한다.

* 육묘판을 햇빛이 비치는 양지에 두면 비닐로 밀봉을 해놔기에 온도가 올라가 위험함

기계정식용 육묘는 싹 틔우기가 더 중요하다. 빈 부분(결주율)이 적고, 모종 크기와 생육이 균일해지도록 기계정식용 씨앗은 구멍 448개짜리(448공) 육묘판을 활용한다. 또한, 기계정식용 전용 상토를 쓰고, 물을 알맞게 공급한다. 제때 잎을 잘라주는 전엽과 함께 병해충 예방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파속채소연구센터 문지혜 소장은 “건강한 모종은 아주심기 뒤에도 뿌리내림이 빠르고 겨울을 나는 비율(월동률)이 높으며 봄철 생육 회복이 빨라 안정적인 수량 확보로 이어진다.”라며 “제때 씨앗을 파종하고 싹이 잘 트게 하는 등 기본 육묘 기술을 철저히 실천해 달라.”라고 말했다.

붙임. 양파 모종 싹 틔우기(최아 처리) 관련 사진

담당 부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파속채소연구센터	책임자	센터장	문지혜 (061-450-7401)
		담당자	연구사	정효진 (061-450-7411)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 농업의 모든 것  농사로			



[1] 5층씩 교차해서 30층 쌓기



[2] 랩, 검정비닐로 밀봉



[3] 발아(눈 틈) 적정 온도인
20~25℃에서 2~3일 보관



[4] 싹 틔우기(최아) 처리 4일 후
균일하게 싹이 남